

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

I. 개 요

1. 일시: 2012. 09. 18. (17:00~19:00)
2. 장소: KIEP 9층 회의실
3. 발표자: 이요한(라오스 수파노봉대학교, 교수)
4. 참석자

－ 원내

이창재(동아시아협력팀, 선임연구위원)
김태윤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강대창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오윤아(동남아팀, 부연구위원)
정재완(동남아팀, 전문연구위원)
이재호(동남아팀, 전문연구위원)
신민금(동남아팀, 연구원)
김유미(동남아팀, 연구원)
박나리(동남아팀, 연구원)
김윤옥(전략연구팀, 연구원)
이윤정(인턴)
이보라(인턴)

－ 원외

이충열(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경제학과, 교수)
성춘기(KOICA 동남아2팀, 팀장)
이하늘(KOICA 동남아2팀, 전문연구위원)
이선미(아시아재단, 사업보좌관)
윤진표(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, 교수)
김형중(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, 교수)

5. 제목: 라오스의 인적자원(HRD) ODA 지원현황과 한국의 시사점

II. 주요 논의 사항

1) 발제내용

- 라오스 경제는 최근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여전히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임.
 - 라오스는 2005년 이후 연간 경제성장률 7%를 유지하였음.
 - 1인당 GDP는 2005년에 460달러에서 2011년에 1,100달러로 증가하였음.
- 라오스는 인간개발지수(HDI: Human Development Index) 0.524를 기록하여 전체 187개국 중 138위를 차지하였음.
 - 라오스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HDI 격차가 큼.
-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로 라오룸, 라오쑹, 라오텅을 포함한 49개의 소수민족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 종족간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함.
 - 라오룸은 지배종족으로 라오스 정치와 경제를 주도해왔음.
 - 흔히 몽족이라 일컫는 라오쑹은 인도차이나 전쟁 시 미국과 협력한 바 있음.
 - 크메르계인 라오텅은 라오스 내 취약계층임.
- 라오스는 지역별로도 빈곤 수준에 큰 차이가 있음.
 - 2008년에 비엔티엔시의 빈곤율은 15.2%였던 것에 비해 북부의 빈곤율은 32.5%를 기록하였음.
- 2010년 기준, 라오스의 정부지출 대비 ODA 비중은 약 53%에 달

하며, 인프라, 교육, 보건, 농업 순으로 정부지출이 많이 이루어졌음.

□ 라오스 정부는 2020년까지 최빈국 지위를 탈피하고,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(MDG)를 달성하기 위해 ‘제 7차 국가사회경제개발 계획(2011~15년)’과 ‘라오스 교육체육부 HRD 목표’를 수립하였음.

－ 해당 정부는 교육을 성장 및 빈곤 퇴치를 위한 4대 축(농업, 인프라, 보건, 교육)의 하나로 지정하였음.

□ 세계은행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일본, 호주 등 국제기구 및 공여국은 라오스의 HRD에 대한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음.

－ 세계은행은 라오스 비자원 부문 성장을 위한 HRD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.

○ 세계은행은 라오스 정부와 함께 ‘중점 및 취약 지역의 초등교육 질 제고 및 접근성 확대’ 프로젝트를 시행중임.

－ ADB의 대라오스 교육 전략에 따르면, ADB는 라오스의 고등교육, 기술 및 직업훈련, 중앙 및 지방 정부개혁, 훈련 및 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.

－ 일본은 라오스 남부 빈곤지역 3개 주를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교육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시행중임.

○ 교육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건설이 포함됨.

○ 고등교육 프로그램에는 일본 유학 장학생 지원, 라오스 국립대에 설치된 ‘라오스-일본 HRD센터’ 운영이 포함됨.

－ 호주는 라오스 북부 소수민족 대상 초등교육 실시, HRD 전략수립 및 평가를 위한 연례보고서 작성, 고등교육 시행 등을 지원하고 있음.

○ 호주는 라오스 국립대 장학생 선발, 기초교육 협력, 교육 개선

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.

□ 최근 4년간(2008~11년) 한국의 대라오스 무상원조 지원 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, 교육이 35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.

－ 교육 분야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직업훈련학교 및 소수민족학교 설립사업, 중등교과서 보급 사업이 있음.

□ 한국의 대라오스 HRD분야 ODA의 한계로는 중점 지원 분야의 부재,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을 들 수 있음.

－ 우선 초등학교, 고등학교, 직업학교, 대학교 등 유무상사업 분야가 모두 다르고 현지 수요에 대한 연구와 전략이 부족함.

－ 수파노봉대학교 건설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듯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지원이 분절되어 있어 원조의 효과가 떨어지고 사업이 단기사업으로 종료됨.

－ 다른 공여국 및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.

□ 한국은 △ 고등교육 △ 북부 빈곤지역 △ 소수민족 및 여성으로 대라오스 HRD 집중 지원 분야 및 지역을 설정해야 할 것임.

□ 한국은 정책, 연구, 파트너십을 위해 HRD 전문가(HRD advisor)를 파견할 수 있음.

－ HRD 전문가는 중기(3년), 연례 등 정기적으로 HRD 전략보고서 및 사업평가표를 마련할 수 있음.

－ HRD 전문가는 라오스의 교육환경 및 수요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라오스 HRD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음.

－ 협의 면에서 HRD 전문가는 라오스 교육체육부, 투자기획부 등

HRD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과 정보 공유 및 사업 분업을 추진할 수 있음.

- 한국은 대라오스 HRD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본처럼 ‘한국-라오스 HRD 센터’를 설립하여 운용할 수 있음.
- 대라오스 HRD 지원시 목표를 세부화하고 우수인력에 대한 현지 장학제도 운영도 고려할 수 있음.
 - 대라오스 지원 전략지역을 군 또는 마을 단위로 설정하고 재학율, 문해율, 교사/학생 비율 등의 목표수치를 제시하는 등 목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.
 - 현지 장학금은 한국 유학 장학금보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장점이 있으며, 현지 장학생 선발시 소수민족, 여성, 빈곤지역 교사 지원자 등을 우대할 수 있음.

2) 토론 내용

- 현지에 ‘한국-라오스 HRD 센터’를 창설하는 아이디어는 좋으나, 라오스에 해당 센터를 설립할 경우, 한국의 중점 원조 지원국 약 50개국에 이를 모두 설립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.
 - 현재는 라오스 현지 공관이 ‘원조 협의회’를 분기별로 운영하여 기타 원조 공여국 및 기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꾀하고 있음.
- 한국의 누적 ODA 규모는 일본, 호주 등 다른 원조 공여국보다 훨씬 적음.
- 한국도 대라오스 무상원조 지원 전략을 세우고 해당 전략대로 ‘중등교육’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음.
 - 중등교육이 사람으로 치면 ‘허리’인데 중등교육을 거치지 않고 고

등교육 지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임.

□ 한국은 지금까지 비엔티엔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왔음.

- 라오스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열악하나, 최근 이 지역에 중국의 영향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어 한국이 북부를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음.
- 라오스 남부지역은 인구의 약 1/3이 베트남인이어서 남부를 전략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원할 경우, 사업성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음.
- 선진 공여국들이 오래전부터 전략지역을 선정해서 지원해 왔기 때문에 한국이 전략지역을 선점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음.

□ 라오스가 당장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어려움.

- 현재 라오스 지도층이 라오스를 산업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- 라오스는 내륙 국가이고, 물류시설도 현저히 부족함.
- 라오스 국민들이 '기술직'을 천시한다는 문제점이 있음.
- 라오스는 베트남, 중국 등 주변국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짐.

□ 라오스 국민들이 학교를 다닐 동기가 부족함.

- 라오스 국민들은 교육을 통해서 계층이동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부족함.
- 국민 대부분이 불교도여서 내세지향적임.

- ☐ 라오스는 중국, 태국, 베트남 등 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민들이 교육을 받을 경우 두뇌유출이 우려됨.
- ☐ 소수민족이 학교에서 다수민족과 융화가 될 지 여부도 불투명함.
- ☐ 라오스는 라오인민혁명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과연 ‘당’이 교육 개발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고, 인재 육성 의지가 있는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.
- ☐ 중국의 대라오스 원조는 영리적인 성향이 강하여 원조 규모는 크나, HRD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조는 미미함.
- ☐ 국경을 접하고 있는 태국도 라오스에 대한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태국의 대라오스 HRD 지원 전략, 분야 등도 분석해야 할 것임.
- ☐ 라오스가 국가개발 차원에서 롤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임.
- ☐ 교육의 질도 낮고 결석률도 높지만 ‘기회 제공’ 측면에서 교육 원조는 중요하며 교육이 라오스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함.